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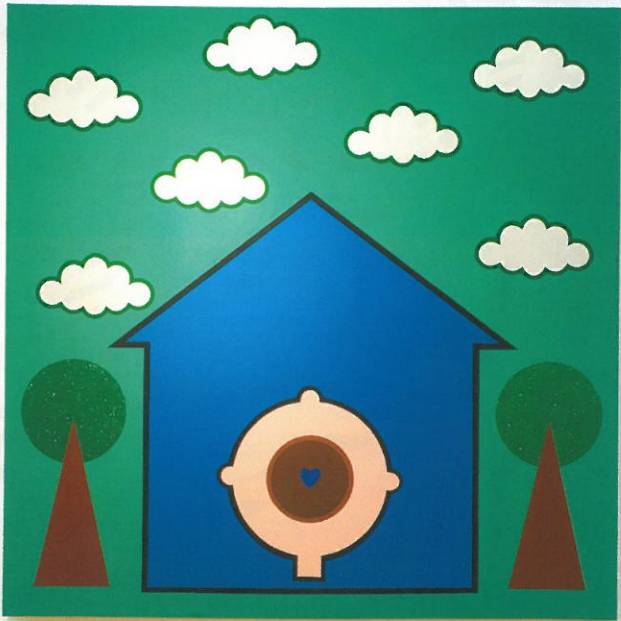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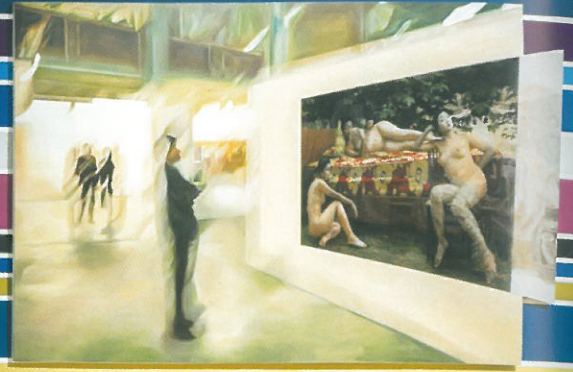
Art

아트인컬처
July 2013

la Biennale di Venezia/
리뷰_백과사전식 궁전
인터뷰_국가관 BEST13

Artist/
피터 짐머만, 코헤이 나와

Essay/
왜, 다시 야나기 무네요시인가
한국미술에서 '방법'의 문제



위 · 배준성 <Tazan of Balzac Museum>
LED모니터, 캔버스에 유채
193.9×259.1cm 2012(왼쪽),
배준성 <Museum> 캔버스에
유채, 렌티큘러 220×163cm
2007
아래 · 박미나 <In the House> 캔버스에
아크릴릭 200×200cm
2004(왼쪽), 박미나 <Color Strips> 캔버스에 아크릴릭
180×180cm 2004

찢기고 꿰매어진 10여 개의 캔버스들로 이뤄져 하나의 커다란 회화조각을 이룬다. 기획자 이승현은 “찢어지고 구성된 캔버스들은 마치 오늘날 현대미술에서 회화의 고충과 위상을 보여 주는 듯하다”고 말한다.

이어지는 각 전시실은 개별 작가의 대표 작업을 확인할 수 있도록 배치했다. 이번 전시에서는 이불의 <사이보그>(2006)나 <키아스마>(2005), 최우람의 <어바누스>(2006) 암수 한 쌍 등 일본 모리미술관에 전시된 이들의 대표작이 한 공간에 전시되어 있다. 특히 이 작품들의 설치 공간이 흥미롭게 꾸며진 점이 작품을 한층 돋보이게 하였다. 골판지와 검은 비닐을 이용해서 전시 공간을 마치 동굴 속처럼 연출함으로써 작품에 익숙한 관객도 색다른 느낌을 받았다. 2007년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에서 선보였던 이형구의 <펠리스 카투스 아나마투스/무스 아나마투스>(2006~07)가 로비의 한 쪽 끝에, 그 옆의 전시 공간에는 김승영의 설치 작품 <깃발>을 볼 수 있다. 얼마 전 남극을 다녀온 후 작가는 “바람이 남극을 설명해 주는 것 같았다”고 하면서, 세차게 흔들리는 깃발을 통해 남극의 바람을 효과적으로 시각화했다.

대형 전시장 입구에 들어서면 김정옥의 섬뜩한 인물 작품과 유근택의 최근 작품이 한국화의 현대적 시도를 면면이 소개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강홍구, 박상호, 홍성도의 대형 사진 몇 점이 그 넓은 전시장을 비좁게 느껴질 정도로 가득 채우고, 그 가운데 함진의 <폭탄 위의 도시>(2006)가 놓여 있다. 바로 옆으로는 사진과 회화, 사진과 설치를 병행하며 일루저니즘의 섬세한 묘미를 선사하는 장유정의 작품, 그리고 회화와 사진의 경계를 비닐, 렌티큘러, 동영상 등의 다양한 매체로 넘나드는 배준성의 작품을 만날 수 있다. 전시장 중앙에는 김혜련의 8폭, 10폭, 6폭의 대형 회화가 캔버스를 오려 붙이고, 쌓고, 찢은 설치 작품과 함께 펼쳐진 가운데, 정연두, 니키 리, 전준호, 임민욱의 동영상 작품이 4개의 방에 나뉘어서 상영되고 있다. 이 네 작품만으로도 포박 두어 시간은 소요될 정도로 전시를 알차게 만들어 주는 코너다. 그리고 그 앞에 정연두의 사진과 전준호의 미라 작업 <무제>(2007~08)가 설치되어 있다. 마지막 섹션으로 넘어가면서 김은주의 연필 드로잉이 한 벽면을 채우고, 이어서 박미나의 개념적 회화들, 정수진의 <뇌해>(2000)를 위시한 다차원 회화들, 김성수의 <메탈리카> 연작 회화 등이 펼쳐지고, 김홍석의 이색적인 회화와 모니터 두 대에 비디오 작품 <사람 객관적-평범한 예술에 대해>가 나란히 선보인다.

마지막으로 전시는 한국 현대미술 소품을 이용한 실내 인테리어를 제시하기 위해 ‘컬렉터의 방’으로 이어진다.

서도호의 <Home, Sweet Home>을 비롯해서, 마이클 주의 <Improved Rack>(2005), 이불의 <사이보그> 도자기 등 대표 작가의 개인 소장가용 소품이 있는가 하면, 김명범의 커다란 전구 속 살아 있는 물고기와 해바라기 생화 작품, 김현준의 골판지 폐상자를 이용한 조각, 윤정원의 바비인형으로 구성된 네온 작품, 홍성도의 아톰인형과 풍선 등 일상의 위트와 패러디를 활용한 감각적 작품이 함께 놓여 있다. 정수진의 화첩과 머리병풍 형태의 회화, 함진의 회화 등 평소 이들의 전시에서 쉬이 접하기 어려운 작품을 한 방에 모아 놓았다.

세계를 향한 역동적 몸짓

서두에 밝혔듯, 한국 현대미술의 스펙트럼을 확인할 수 있도록 국내 대표 작가의 주요 작품을 한자리에 모으려는 기획자의 의도는 작품뿐 아니라 작가들까지 한자리에 모아, 서로의 연계를 꾀하도록 했다는 점이 흥미롭다. 명망이 높아질수록 함께 만나지 않으려는 작가들이 부산까지 내려가 함께 개막식을 치르며 해변의 퍼포먼스도 같이 연출했다는 점은 이례적인 기록으로 남을 듯하다. 폭풍 바람이 유난히 거셴던 해운대 바다에서 ‘한국미술, 대항해 시대를 열다’라는 커다란 전시 제목이 적힌 황포돛대를 힘겹게 세우고 그 돛을 함께 올리던 작가들의 마음에 쩍하게 울렸을 감동은 가히 짐작할 만하다. 그러한 감동의 울림이 전시의 구조와 직결되어 세계로 뻗어 가려는 한국미술의 역동력을 보장하는 것이 아닐까 싶다. 그래서 그 저녁의 감동은 다소 격양된 기획자의 말을 설득력 있게 만든다. “한국 경제력의 성장에 고무되어 해외에서 한국작가와 한국미술에 관심을 두기 시작한 데 반해, 우리는 오히려 수 십억 원씩 하는 해외 미술품에 한눈을 파느라 수 백만 원, 수 천만 원하는 한국미술품은 거들떠보지도 않는 실정이다. 자국민도 거들떠보지 않는 작품을 해외에서 눈여겨 봐주기를 기대하기는 어려운 일이지 않은가?” 그래서인지 때마침 자신의 전시로 내한했던 세계적인 작가 짐 다인(Jim Dine)이 부산시립미술관 전시를 둘러보고는 “원더풀!”을 연발했다는 에피소드는 왠지 마음을 먹먹하게 만든다. 그 이유는 무엇일까. 그것은 아마도, 외국 작가의 눈에 근사한 작품의 가치를 우리 스스로 제대로 인식하지 못한다면 그보다 어리석은 일이 없을 것이기에. 결국, 한국미술의 세계화는 우리 자신의 태도와 마음가짐에서 시작되는 것임을 새삼 깨닫기 때문이 아닌가 싶다.

/ 전영백